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2

비올라(Viola)

글. 김성현 ubc 울산방송 미디어기술국 부장

연재 목차

- 1편. 바이올린
- 2편. 비올라
- 3편. 첼로
- 4편. 더블베이스
- 5편. 하프
- 6편. 플루트
- 7편. 오보에
- 8편. 클라리넷
- 9편. 바순
- 10편. 색소폰
- 11편. 리코더
- 12편. 트럼펫

이 글은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를 매회 하나씩 소개하게 된다. 악기를 들어가며, 개요, 구조, 종류, 뒷이야기 등의 열개로 기술되며 방송 헌업 하시는 분에게 악기에 대한 이해와 교양으로써 상식을 충전하게 될 것이다.

비올라^{Viola}를 들어가며

2012년 모 방송사에서 ‘제3병원’이라는 한방의와 양방의가 자존심을 걸고 경쟁하는 구도의 의학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다. 그 드라마에서 천재 한방의사 김승현(오지호 분)의 짝사랑 파트너로 소녀시대 수영(극 중 비올리스트 이의진)이 발랄하고 애교 넘치면서도 동시에 암환자로 겪게 되는 고통스럽고 애절한 연기를 선보였다. 대부분의 드라마 여주인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등의 악기 연주자로 출연을 자주 하는 편이라 비올리스트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는 꽤나 낮설었다. 아직은 비올라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악

기는 아니지만 수영의 비올라 연주 장면들이 이 악기의 인지도 상승 측면에서 꽤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추측해본다. 사실 비올라는 음악에 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악기 중의 하나일 것이다. 비록 덜 알려져 있지만 알고 보면 참 매력적인 중음이 아름다운 이 악기를 살펴보자.

비올라의 개요

대중들에게 비올라는 바이올린, 첼로에 비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나마 바이올린보다 크고 무거운 악기에 음역대가 조금 더 낮은 악기 정

그림 1. tvN ‘제3병원’ 비올라 연주 장면(소녀시대 수영) / 출처: 유튜브 CJ ENM



도로 알고 있는 정도라면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거나 상식이 무척 풍부한 분일 것이다. 비올라는 얼핏 보면 바이올린과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크기가 좀 더 크고 바이올린보다 낮은음이 나며, 부드러우면서 비음이 섞인 독특한 음색을 갖고 있다. 이 악기는 알고 보면 바이올린 못지않게 매력이 넘치고 존재감 있는 악기이다. 활도 바이올린에 비해 약간 더 길며 두껍고 무거워서 대부분의 비올리스트는 오른손 보잉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이 악기는 오케스트라 합주, 실내악, 솔로 연주에서 활약하며 어두우면서도 따뜻한 음색의 질감이 풍성한 알토에 비유된다. 이에 반해 바이올린은 소프라노 영역을 담당한다. 즉 바이올린과 첼로의 중간인 중역대에서 화성을 보충하며 두 악기의 중간 매개체를 담당한다.

비올라의 구조

비올라는 몸체, 현, 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로 현을 마찰(찰현악기 - 현을 문질러서 소리가 나는 악기를 지칭함)해서 소리를 낸다. 이 점에서 바이올린과 비슷하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를 바이올린족^{Violin Family}이라고 부

른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족의 악기 중 가장 크기가 작지만, 가장 넓은 범위의 음역을 연주할 수 있다. 또한 그 크기가 작아서 화려하고 빠른 패시지를 보다 날렵하고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다.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크기가 약간 더 큰 악기로서 바이올린보다 완전 5도 아래로 조율된다. 첼로는 비올라보다 한 옥타브 아래로 조율되어 있으며 크기가 더욱 크기 때문에 바이올린이나 비올라처럼 어깨로 지탱하지 않고 바닥에 세워 연주한다. 더블 베이스는 바이올린족의 악기 중 가장 크고 가장 낮은 음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서 첼로와 마찬가지로 바닥에 세워 놓고 연주한다. 관현악에서 주로 선율을 담당하는 악기는 바이올린과 첼로이고, 비올라는 중음부의 화성을 채워주며, 더블 베이스는 첼로를 보강하거나 화성의 뼈대가 되는 베이스를 담당한다. 바이올린은 제작자와 관계없이 그 크기가 표준화(60cm)되어 있는데 반해 비올라는 몸통의 길이가 다르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70cm 정도의 크기이다. 그런 점에서 바이올린은 진화를 끝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비올라는 아직도 진화과정에 있어 앞으로도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악기이다.

Vio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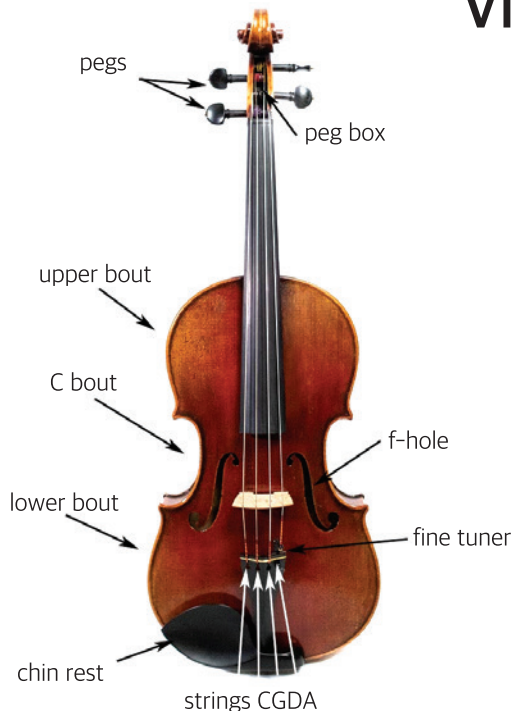


그림 2. 비올라 정면과 측면 / 출처 : amromusi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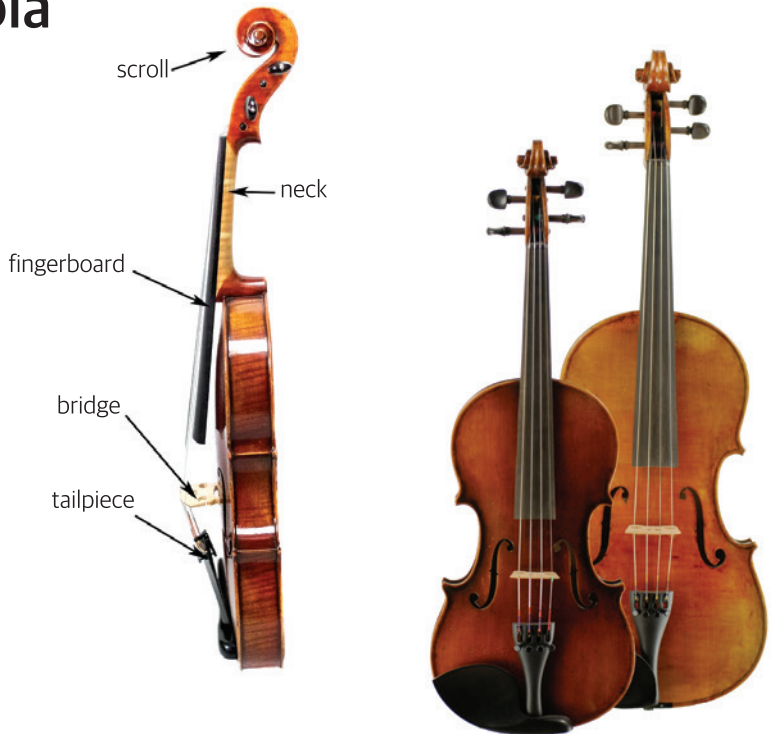


그림 3. 바이올린과 비올라 / 출처 : eac.libguides.com

대부분의 악기는 그 크기가 크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저음이 나는 반면, 크기가 작고 얇을수록 고음이 나게 된다. 징과 팽과리를 비교해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징은 두껍고 커서 저음이 나고 팽과리는 얇고 작아서 고음이 난다. 스피커에서도 저, 중, 고음 유닛^{Unit}별로 가장 큰 우퍼^{Woofer}가 저음, 중간사이즈 미들^{Middle}이 중음, 가장 작은 트위터^{Tweeter}가 고음을 내게 된다. 이처럼 비올라는 바이올린에 비해 음역이 낮아(바이올린보다 완전 5도 낮음) 보다 크게 만들어야 한다. 물리음향학적으로 산출된 비올라 사이즈를 첼로와 바이올린의 중간 정도의 크기로 만들게 되면 너무 커서 목에 대고 연주하기에 어렵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여 바이올린보다 조금 크게 제작된다. 이러한 연유로 바이올린과 첼로의 음색을 포함한 독특한 음색이 나게 된다. 비올라의 2, 3, 4현은 바이올린의 1, 2, 3현과 같다.

바이올린의 현은 G, D, A, E의 순으로 비올라는 C, G, D, A의 순으로 완전 5도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모든 현악기의 조율(튜닝)은 개방현을 의미한다. 완전 4도 간격으로 이루어진 더블 베이스를 제외하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는 완전 5도 간격으로 각 현이 조율되어 있다. 4개의 현 중에서 3개의 현(G, D, A)이 바이올린과 일치하다 보니 비올라의 음을 바이올린의 낮은음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음색이 달라서 구별된다. 그리고 비올라의 활은 바이올린의 활보다 약간 굵고 무거워서 독특한 소리를 내는 또 다른 요소가 된다. 비올라가 현악기 그룹에 합류하게 된 것은 바로크 시대의 다성 음악 시대부터였다. 고전 시대의 모차르트, 베토벤 등은 바이올린과 동등하게 대우하였으며 솔로 연주도 하였다. 동시에 반주와 선율 사이에서 두 기능을 매개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내부구조와 외형, 그리고 연주 기법의 측면에서 비올라는 바이올린과 매우 유사하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올라가 바이올린과 다른 점은 크기와 음역과 음색 정도이며, 음역이 다른 만큼 조율을 5도 아래로 하게 된다. 바이올린에 비해 다소 크기 때문에 같은 운지를 할 때도 손가락을 보다 더 넓게 벌려야 하며 줄감개 방향으로 연주할수록 왼손을 더 뻗어야 한다. 그리고 현도 굵기 때문에 운지를 충실히 해야 하며 가벼운 보잉은 소리를 내는데 더 어렵다. 우리가

흔히 동영상을 보면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는 바디가 커서 연주자의 얼굴이 작아 보인다. 둘째는 악기가 길기에 연주자의 왼손 팔꿈치의 각도를 보면 비올라에 비해 바이올린이 훨씬 각도가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비올라는 1535년을 전후로 하여 북이탈리아 지방에 나타나는데, 바이올린족에 속하는 다른 악기들, 예를 들면 첼로나 더블 베이스 등이 같은 시기에 출현한다. 오늘날 비올라는 악기의 이름은 여러 바이올린족 악기 중에서 알토(정확히는 알토~테너)에 해당하는 뜻을 갖지만 과거, 즉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는 활을 사용하는 현악기를 총칭하는 말로 쓰였다. 당시의 비올라는 비올라 다 감바와 비올라 다 브라치오로 나누어졌었다. 명칭에서 보듯이 비올라 다 감바는 무릎 위에 올려놓고, 비올라 다 브라치오는 팔로 받치고 연주하도록 되어 있었다.

비올라는 바이올린과 첼로 사이의 음역을 담당하는 화음 악기로 사용되기도 하며, 높지도 낮지도 않은 선율을 맡아서 독주 악기로도 쓰인다.

비올라 주법

비올라는 바이올린족으로 바이올린과 연주법이 비슷하다. 바이올린 편을 참조하면 된다.

비올라에 관련한 뒷이야기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비올라

이탈리아의 유명한 악기제작자 스트라디바리우스의 현악기 중에서 현재 500대 이상의 바이올린과 50여 대의 첼



그림 4. 맥도날드 비올라 / 출처 : chinadaily.com

로 그리고 10대의 비올라가 남아 있다. 10대 정도 남아서인지 그 희귀함으로 말미암아 보존 상태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한 대의 비올라는 수백억 원을 호가한다. 2014년 4월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일명 ‘맥도날드’ 비올라가 낙찰 최저가 4,500만 달러(약 458억 원)에 유찰되었다고 한다. 이 비올라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전성기 시절 만들어진 데다 보존 상태가 훌륭하여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다고 한다.

베를리오즈의 비올라 협주곡

베를리오즈^{Berlioz}는 바이올린의 대가 파가니니를 위해 비올라 협주곡 ‘이탈리아의 헤럴드(Harold in Italy)’를 작곡했다. 바이올린으로 이미 세계적 명성을 얻었던 파가니니는 베를리오즈의 작품에 등장하는 비올라 성부가 자신의 기교를 발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작품의 연주를 거절했다고 한다. 훗날 작품이 연주되는 것을 듣게 되면서 그 협주곡의 위대함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후회를 하였을까 짐작해본다.

비올라는 알토음자리표를 사용한다

비올라 연주를 위한 음표들이 바이올린처럼 높은음자리표에 기보된다면, 아래 예와 같이 많은 음표가 오선의 아래쪽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첼로처럼 낮은음자리표에 기보된다면 아래 예와 같이 많은 음표가 오선 위쪽의 텅쉴에 그려져야 한다.



그래서 비올라 연주자들이 음표들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토 음자리표를 사용한다.



비올라 다모레^{viola d'amore}

비올라와 유사한 악기로 비올라 다모레가 있는데, 이 악기는 17~18세기에 유럽에서 성행하였으며 6~7현의 연주현과 함께 공명현이 설치되어 있다. 공명현은 연주현이 활에 닿아 울릴 때 연주현 아래에 평행하게 설치(지판 아래에서 연주현 아래를 거쳐 브리지의 아랫부분 구멍으로 연결됨)되어 있는데 연주현의 울림에 공명현상(물리학 용어로 서로 인접한 물체가 주파수나 파장이 일치하거나 비슷할 때 서로 울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활에 닿지 않고서도 소리가 발생한다. 공명현의 소리로 인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을 자랑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유에서 이태리어로 사랑의 d'amore 비올라^{viola}라고 한다. 공교롭게도 공명현이 특징인 이 악기는 초기에는 공명현이 없었다고 한다. 줄감개 부분도 사람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모양을 조각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비올라에 비해서 길이도 제법 길다. 그리고 사운드 홀도 일반적인 f홀이 아니라 불꽃 모양이며 지판 하단부에 동그란 사운드 홀도 하나 더 설치되어 있다.



그림 5. 비올라 다모레 / 출처 : 위키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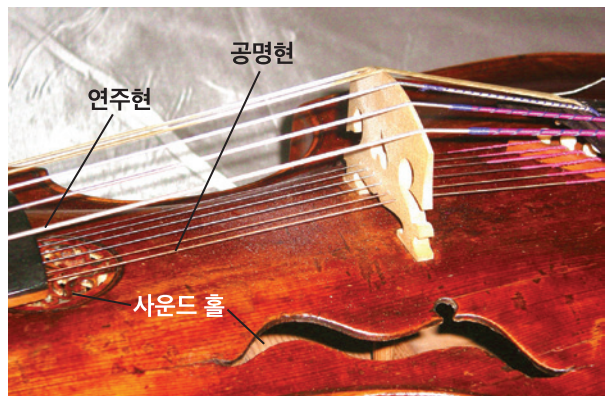


그림 6. 비올라 다모레 공명현과 사운드 홀 / 출처 : 위키피디아

바이올린에서 비올라 연주자로

비올라 연주자는 주로 바이올린 연주자가 전향하는 경우가 많다. 악기의 사이즈가 크고 무거워 어린이가 배우기에는 다소 어려우며, 그나마 조금 커서 배우더라도 성인용 사이즈 바이올린에 비올라 현(바이올린 현보다 더 굵다)을 걸어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처음에 바이올린으로 시작해서 비올라로 전공을 바꾸는 경향이 많다. 비올라를 배우고 싶은 유아나 어린이는 일단 바이올린부터 배워서 기초를 쌓고 나서 후에 비올라를 도전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현악기의 관리

현악기와 목관악기는 재질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습기와 온도에 민감하다. 나무로 만든 악기들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습도(45%~60%)와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온도(18도~27도)를 맞추어 주어야 악기가 상하지 않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습도가 너무 낮으면 나무가 말라서 수축하거나 균열이 생겨 갈라질 수 있는 반면, 높으면 습기에 의해서 팽창하거나 각 부분을 붙인 접착제 성분들이 진드하게 녹아서 연주 시 새는 소리가 난다. 이 같은 제약으로 인해 연주자들의 경우 비가 많이 오는 날과 특히 덥거나 추운 날에 야외에서 연주할 경우에는 세컨드 악기 등을 사용한다고 한다. 기상 때문에 수억 원 이상 하는 소중한 악기를 망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유명 연주자의 경우에는 비행기 좌석을 2개 예매하여 악기와 동승을 한다고 하니 명품 현악기의 관리는 정말 힘들고 지난한 일이다.

현악기는 악기의 보호 차원에서 바니쉬를 바르게 되는데 습기, 먼지,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예방의 효과가 있다. 또한 미관상 유려할 뿐 아니라 음향적으로도 아름답고 정돈된 사운드를 낼 수 있다. 바니쉬의 종류에는 유성과 휘발성으로 나눌 수 있다. 유성은 칠하기 쉽고 광택이 있는 반면 휘발성은 칠하기 어렵고 쉽게 오염이 될 수 있다.

흔히 사람들로부터 스트라디바리와 파르니에리는 바이올린의 양대 산맥이자 명품 라이벌로 회자된다. 여성적인 섬세함이 특징인 스트라디바리에 비해 파르니에리는 남성적인 투박함으로 대별된다. 이처럼 악기 제조 명가나 제조 방식에 따라 음질이 달라진다. 특히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악



그림 7. 영화 '레드 바이올린' / 출처 : dailymotion.com

기 제조 비법에 관해 많은 추측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몸체에 바르는 액체가 특이하다는 것이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1720년대 전성기에 만든 '레드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 바이올린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기를 여러 번 반복한 전설로 유명하다. 1990년 런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약 20억 원에 최종낙찰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엘리자베스 핏케이언이 최근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이 악기를 모티브로 영화 '레드 바이올린'이 제작되었다. 이 영화에서 바니쉬의 중요성을 잘 표현했는데 바이올린의 장인 니콜로 부조티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의 피를 몸체에 칠해 최고의 붉은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게 된다는 내용이다.

비올라 사이즈

바이올린이 크기별로 다양한 사이즈가 있듯이 비올라 또한 9세 이하가 사용하는 13인치 사이즈부터 16세 이상이 사용하는 17인치까지 다양하다. (13", 14", 15", 15"1/2, 16", 16"1/2, 16"3/4, 17")

비올라 수음

마이크를 이용해서 악기음을 수음하는 방식은 바이올린과 비슷하다. 주로 콘덴서 마이크나 라발리에 마이크를 사용한다. 이전 바이올린 편과 첨부된 동영상상을 참조하면 된다.

비올라에 대한 오해

음향 엔지니어가 자주 사용하는 측정장치 중에서 스펙트럼 아날라이저Spectrum Analyzer가 있다. 어떤 음향이나 음악을 저음에서 고음까지 주파수를 여러 밴드로 나누어서 막대그래프 패턴으로 보여주는 장치이다. 오케스트라 음악을 이 장치



그림 8. 2구 뮤트 / 출처 : rosamusicalinstrument.com

로 분석해보면 저음에서 중음, 고음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화려한 음색과 솔로 연주가 잦은 고음, 웅장하고 중후하면서 리듬의 토대가 되는 저음을 더 잘 듣게 된다. 분명 중음도 존재하지만 그냥 묻어서 듣게 되는 경향이 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저음은 튼튼하면서 골격을 유지하는 뼈가 될 것이며, 고음은 아름답고 화려하며 부드러운 피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음은 뼈와 피부의 중간에 위치한 살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 살이 없으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사람에게 있어서 살덩어리처럼 음악에서 중음은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 존재 자체로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오보에, 플루트, 트럼펫 등은 고음 영역을 표현하며 더블베이스, 첼로, 바순, 튜바 등은 저음 영역을 담당한다. 중간음역은 비올라, 트럼본, 호른 등이 이에 속하며 솔로나 주 성부가 아닌 여백을 메우는 부차적인 성부로 취급된다. 그래서인지 음악인들 사이에서는 중간 음역대 악기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진다고 한다. 유독 비올라 악기에 대해 악의적이진 않지만 회화해서 떠도는 농담도 많다고 하는데 사실 음악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파트가 어디 있을까! 현악기군에서 비올라 파트가 비록 주선율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중간에서 화성을 연주함으로 인해 음악은 비로소 완벽한 어우러짐과 세련됨으로 완성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비올라는 바이올린의 고음과 첼로나 더블베이스의 저음 사이에 중음을 채워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블렌딩이 이루어진다. 비올라의 이러한 중요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현악4중주에서 제1바이올린을 라벨, 제2바이올린을 콜르크마개, 첼로를 병, 비올라를 와인으로 비유한 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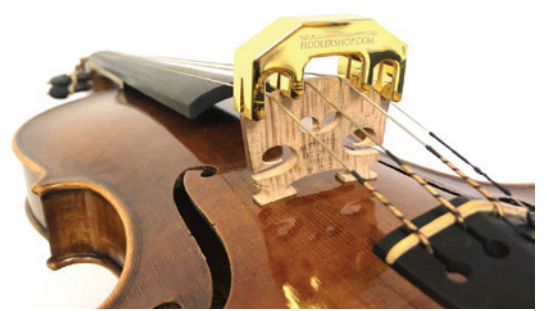


그림 9. 4구 뮤트 / 출처 : fiddlershop.com

뮤트 사용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뮤트(Mute)(약음기)를 사용하는데 금속, 고무, 하이브리드(금속에 고무가 코팅됨)의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주에 사용하여 음색을 바꾸고 약간의 음량을 줄여주는 2구 뮤트와 집에서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그야말로 소리를 확 줄여주는 4구 뮤트가 있다. 2구의 경우에는 평상시 줄에 걸쳐 있다가 뮤트 사용 시 브리지에 장착해서 사용한다. 개량형으로 자석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테일피스의 끝에 자석을 부착하여 뮤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석 쪽으로 붙여놓음으로써 연주 중에 흔들리거나 잡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4구의 경우에는 연습 시 브리지 위에 장착한다. 이것은 확연히 소리가 줄어들어서 심야에 연습용으로도 안성맞춤이다.

오케스트라 내 비올라의 배치

오케스트라의 구성은 현악기군, 목관악기군, 금관악기군, 타악기군으로 크게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각 악기군 안에도 여러 악기가 기능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악기군 (약 60개)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하프
목관악기군 (약 15개)	피콜로, 플루트, 오보에, 잉글리쉬 호른,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파곳), 더블 바순
금관악기군 (약 15개)	호른, 트럼펫, 트럼본, 튜바
타악기군 (약 10개)	팀파니, 큰북, 작은북, 심벌즈, 트라이앵글, 튜블라벨, 실로폰, 글로켄슈필, 첼레스타 (팀파니가 표준적이며 나머지 악기는 일정치가 않음)

이렇게 많은 다양한 악기들이 제각기 아무렇게나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음향적 특성과 연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으로 배치되게 된다. 각 악기군의 배치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르러 확립이 되어있는데 연주곡의 성격과 지휘자의 음향에 대한 가치관에 의해서도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에서 전통적인 악기 배치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대부분의 오케스트라가 이를 따르고 있다. 현악기 배치에 따라서 크게 유럽식, 미국식 및 절충식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유럽식** : 좌로부터 제1바이올린, 첼로(뒤에 더블베이스), 비올라, 제2바이올린
- **미국식** : 좌로부터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뒤에 더블베이스)
- **절충식** : 좌로부터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뒤에 더블베이스)

대부분의 악기는 같은 연주를 하는 그룹끼리 묶으면 연주하기에도 용이하고 관객이 듣기에도 편하다.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 묶음, 첼로와 더블베이스 묶음 등이 그렇다. 그런데 유럽식은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을 지휘자를 중심으로 좌, 우로 완전히 분리해버렸다. 특히 주선율을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이 서로 교차해서 연주하는 음악의 경우에 좌우로 나누어져 있어서 음향적 효과가 크다. 만약 붙어 있다면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예를 들면 차이코프스키의 6번 교향곡 4악장의 첫 선율은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이 교차로 형성하는 라인이 멜로디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곡들은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이 화음을 연주하므로 미국식이 유리할 것이다. 현재 미국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을 같은 자리에 묶고 그다음에 비올라, 또 그다음에 첼로와 더블베이스를 묶어 고음, 중음, 저음의 고른 분배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절충식은 제1바이올린 악장(콘서트마



그림 10. 오케스트라 악기 배치도 / 출처 : kids.renoph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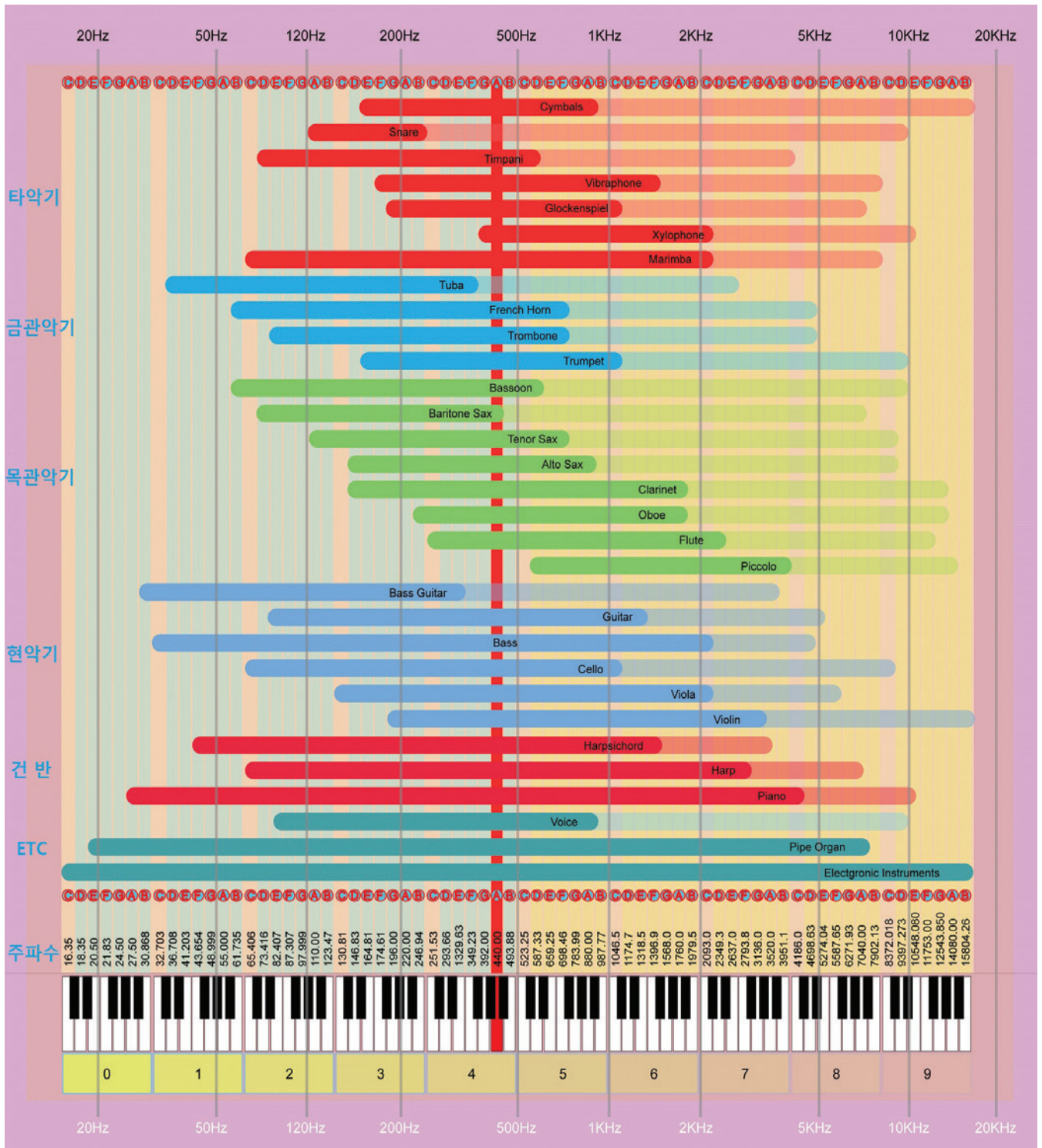


그림 11. 오케스트라 악기의 음정과 주파수분포 차트

스터(Concertmaster)라고 하며 지휘자의 왼쪽 첫 번째 바이올린주자이다. 곡에서 바이올린 솔로 연주가 필요할 시에 혼자 연주하며, 지휘자 부재 시 지휘자를 대신하며,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 시 협연하는 솔로 바이올리니스트의 악기가 부러지거나 현이 끊어지면 악장의 바이올린을 받아서 연주를 마치고

게 됨)과 첼로 수석의 호흡을 맞추기가 용이하다. [그림 10]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국식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필자의 경우엔 오케스트라를 멀티 마이킹해서 믹싱할 경우엔 실제 보이는 위치에 따라서 패닝(오케스트레이션 패닝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악기들이 실제 보이는 위치 그대로 패닝을 실시하는 것)을 하고 지휘자 뒤쪽 천장에 매달려 있는 서스펜션 마이크(주로 좌, 우로 2개 설치하여 스테레오 출력이 나옴)의 신호를 받아서 살짝 엮어 준다. 그러면 리버브 없이도 자연적이고 멋진 잔향과 조화로운 패닝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현악4중주, 5중주, 7중주 등을 개별 마이킹을 해서 받는 경우 화면에 보이는 위치대로 패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므로 첼로나 더블 베이스 같은 저음 악기는 센터로 패닝을 한다. 보통 우측에 저음 악기가 많이 위치하게 되는데 화면에 따라서 우측에 패닝하면 저음의 과도한 에너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부자연스러운 음악이 된다. 스테레오 기술이 발명되고 녹음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던 초창기(50, 60년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정교하고 세련된 녹음과 믹싱 기술에 비하면 그 수준이 미약하였다. 그 당시 서양의 재즈나 락 음반을 들어보면 좌측에는 더블 베이스, 오른 쪽에는 세트 드럼, 심지어는 보컬을 센터에 정위하지 않고 좌측이나 우측으로 하드 패닝한 앨범도 더러 있다. 어쨌든 저음의 강한 에너지는 센터로 정위하게 되면 안정감 있는 믹싱물이 된다.

오케스트라 악기의 음정과 주파수 분포 차트

[그림 11]은 오케스트라의 악기의 음정과 주파수 분포 차트이다. 이 차트를 이해하고 향후에 이어질 글들을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지면상 이번 편에만 첨부할 것이다.

비올리스트 파울 힌데미트 Paul Hindemith

힌데미트는 1895년 독일 태생으로 콘서트마스터까지 역임했을 정도로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였다. 그의 나이 26세 때부터 돌연 비올리스트로 전향하면서 작곡과 지휘까지 활동을 넓혔는데 이때 비올라를 위한 여러 곡을 작곡하였다. 그는 그때까지 바이올린과 첼로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던 이 악기를 당당히 독주 악기의 반열에 들게 했다.

리처드 용재 오닐

2004년 모 방송사의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지적장애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단한 공부와 연습을 통해 당당하게 줄리어드 음



그림 12. 힌데미트 / 출처 : baltimoresun.com

악원의 아티스트 디플로마 프로그램에 입학한 젊은 비올라 연주자(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을 다룬 일이 있다. 그로 인해 비올라가 대중들에게 꽤 알려지게 되었다. 다큐 첫 도입부를 보게 되면 지적장애 어머니와 그의 남자 친구인 시골 무명 가수가 자신들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표현하기 힘든 애잔함과 밝은 희망 등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였다. 그들의 서로에 대한 무한 사랑을 느끼며 간만에 멋진 다큐를 보게 된 필자는 크나큰 감동에 사로잡혔다. 이미 클래식 음악계에 화려한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겸손한 그의 모습에 푹 빠져 시리즈물 전편을 앉은 자리에서 다 보게 되었다.

긍정적이고 헌신적이며 희망적인 마인드로 항상 주변에 도움 곳을 찾는다는 그는 “진정한 기쁨은 나눔에 있어요. 저



그림 13. KBS 인간극장 / 출처 : 유튜브



그림 14. 리차드 용재 오닐 / 출처 : shazam.com

는 이 지구별에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하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 좋은 게 있으면 나눠요. 왜 혼자 가져요?”라고 얘기한다. 그는 세종솔로이스츠와 링컨 챔버 뮤

직 소사이어티의 멤버, 클래식계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앙상블 디토, 에네스 콰르텟 등에서 활동하며 인기 앨범도 다수 발표하였다. 

비올라 음원들



tvn '제3병원' 수영 비올라
여신의 뒷이야기!



Harold in Italy - Berlioz



An Introduction to the
Viola d'amore



The Red Violin - Anna's Theme /
Main Theme
(아내의 피를 바니쉬로 만드는 내용 포함)



violin/viola miking 관련 영상



violin/viola mute 관련 영상



Hindemith : Der Schwanendreher
비올라 협주곡
일명: 백조고기를 굽는 사람



KBS 인간극장 리차드 용재 오닐



MBC Kpop 리차드 용재 오닐
- 섬집아기



이것으로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현악기군에서 두 번째 주자 제2편 비올라를 마치게 되었다. 다음에는 중저음의 매력이 넘치는 악기 제3편 첼로가 연재된다.